

## 중·고등학생의 성장과정 상처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이 만 표<sup>†</sup>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이 연구는 청소년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성장과정의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간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중·고교생 2,119명을 표집, 조사·수집된 자료를 분석했다. 차이분석, 중다회귀분석, 경로분석 결과, 성장과정의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요인 면에서 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그리고 가정경제 환경이 곤란한 학생들과 학업 성적 수준이 하위권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음이 의미 있게 밝혀졌다. 열등감에 영향을 주는 성장과정의 상처 요인은 행복감, 안정감, 인정감의 상처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성격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과정의 상처 요인은 행복감, 안정감, 자신감, 사랑, 평등감의 상처 순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정신건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성장과정의 상처 요인은 행복감, 안정감, 자신감, 사랑, 평등감의 상처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성장과정 상처의 직접효과보다 성격장애와 열등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장과정의 상처가 열등감과 성격장애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정신건강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과 함께 가정환경의 건강성과 교육적 성장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주제어 : 성장과정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

<sup>†</sup> 교신저자 : 이만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402-751) 인천시 남구 인하로 100  
E-mail : mplee@ksa.or.kr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1994년~1999년에 태어난 세대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적 자신감과 국민적 자존심이 극대화된 시기에 태어났거나 아둥기를 맞이한 세대이다. 술한 역경과 시련을 거쳐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적인 최빈국에서 세계가 선망하고 주목하는 경제발전의 우등생 국가가 되었다(Drucker, 1999)는 점에 국민적 긍지와 자신감이 팽배한 분위기에서 성장·발달한 ‘복 받은 세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21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주도할 주역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부모와 가정환경, 건전한 학교환경과 성숙한 사회환경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며 바람직하게 성장·발달·성숙할 권리가 있다. 때문에 부모와 교육자, 사회와 국가는 이들 청소년들이 발달함과 행복감을 만끽(滿喫)하면서 인생과 미래를 설계하고, 자신의 목표성취를 위해 자기역량(自己力量)의 연마에 몰두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선도(善導)할 책임이 있다.

그러자면 부모와 교육자 등 우리 모두는 ‘UN 아동권리선언’(10개 항), ‘세계인권선언’(30개 항), UN의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UN 아동권리협약’(UN 어린이 헌장, 45개 조항), ‘대한민국 어린이헌장’(11개 항), ‘대한민국 청소년헌장’(9개 항), ‘장애인차별금지법’(50개 항), ‘장애인복지법’(89개 항), ‘다문화가족지원법’(16개 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38개 항) 등의 정신에 주목하고, 학생들의 권리와 적성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김홍규, 이호정, 2009).

그런데 학생들의 부모세대들은 ‘자식이 벤처다’라는 강한 집념 속에 2세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고, 힘닿는 데까지 밀어 주겠다는

의식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강하다. 이 교육적 열정이 지나쳐 젊은 어머니들은 ‘적당히 똑똑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신념하에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 ‘슈퍼 맨(super man)’, ‘알파 걸(alpha girl)’이란 시대적 신조어를 만들어 냈고, 사교육 과열의 주도세력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녀교육에 올인하였다. 그 결과 그들의 자녀교육 행태는 세 가지로서, 많은 지식정보와 인맥을 활용한다는 것과 헬리콥터처럼 자녀들 주변에서 스케줄을 짜주고 관리한다는 것,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타인을 능가하는 ‘슈퍼 맨’, ‘알파 걸’로 자신의 자녀들을 키우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김홍규 외, 2012).

이 같은 현상은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고, 정상적인 청소년기 발달과제에 대한 결손과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성적 영역, 정신적 영역,’에서의 발달과 인격성숙의 과제(김홍규, 이만표, 2009; 福井康之, 1985)등 막중한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 같은 과업을 어느 정도 수행하는데도 힘이 들어 부적응과 좌절을 겪게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학력과 학벌주의의 가정환경과 병리적 사회 분위기, 가정해체의 급증 현상과 유치원 이전부터 ‘조기교육’, ‘심화학습’, ‘과외’, ‘선행학습’ 등 다양한 학원교육에 참여시켜 끊임없이 자녀들을 동분서주(東奔西走)시키면서 끝없는 ‘학대의 길’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이 청소년 자녀들에게 열등감을 증폭시키고 정신건강을 해치게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이다.

더욱이 1980년대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 투쟁과 그에 따른 가정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주부·여성·자녀의 발언권이 강화되었고 여권 신장에 따른 모성사회화(母性社會化)는 자녀들 특히 남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김홍규 외, 2012; 河合隼雄, 1997).

다양한 또래들과의 놀이와 풍요한 정서교류를 통해 창의력 신장, 의사소통 능력 함양, 대인관계 능력의 발달, 심리적·사회적 성숙(김정운, 2006)이 되는 것인데 엄마와 사회 환경이 이 같은 장점들을 빼앗아 오직 교과공부에만 몰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자신들이 흥미를 느끼는 세계와는 접촉하지도, 관심을 갖지도 못하게 하고 또래들과의 어울림도 철저히 통제하니 대인접촉기회는 감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고립화 양상이 강화되어 자기중심적 인간이 되고 지나친 자기애적 태도를 축적, 궁극적으로 자기애적 인격장애자로 악화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모친의 양육태도 하에서 성장한 아동은 비활동적 혹은 비의욕적·무기력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고(宮田 加久子, 1991), 매사를 부모의 지시·조종에 순치(馴致)된 결과, 이들은 무엇을 해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일에도 의욕적으로 관여하려 하지 않으며, 매사가 귀찮고 왠지 허전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소위 '실존적 공허감'을 호소하게 되고(齊藤環, 1997), 무쾌락·무쾌감증의 언헤도니아(anhedonia), 회피성, 소극 수동성(笠原 嘉, 1984)이 강화된다.

결국 10여 년 전 일본에서 현대의 국민병인 사춘기좌절증후군이니, 사회적 내폐증(ひきこもり)이니 하면서 청소년의 무기력에 주목했던 것(齊藤環, 1997)이 남의 얘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한 해(2011)에 1만 146건이나 접수되고, 아동 학대가 대부분 가정(87%)과 부모(83%)에 의해 자행되며, 피해 아동의 43%가 방임이나 정서 학대를 당하는 현실이다(보건복지부, 2012. 11. 19; KTV 보도).

그런데도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청소년 일탈행동과 관련한 연구 주제는 미혼모 문제(최승희, 2003), 청소년 성 건강문제(노혁, 김미숙, 2003; 임은희, 서현숙, 2007), 청소년 물질 오·남용 및 중독문제(임영식, 이장한, 김선일, 함진선, 2003), 집단 괴롭힘 및 학교구조 문제(김천기, 2002; 김현성, 2004; 박선웅, 2002; 박수익, 2011; 박영신, 김의철, 2001; 박윤배, 김경식, 2002; 신군자, 2004; 신희경, 2006; 이춘재, 팍금주, 2000;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청소년 가출, 학교적응문제(팍수란, 2006, 2011; 구자경, 2003; 김민, 2001; 김천기, 2004; 김혜영, 2002; 박정희, 박정미, 2010; 박창남, 도중수, 2003; 이상준, 2011; 이현지, 박석돈, 2003; 조아미, 2002; 조용태, 배영태, 2003; 조은정, 2008; 최지은, 신용주, 2003; 한상철, 2001), 청소년 폭력행동 문제(박영신, 김의철, 2000, 2001; 박영신, 김의철, 2003), 청소년 학생 범죄문제(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3),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문제(구자경, 2004; 김연희, 유미숙, 2009; 김오남, 2005; 김윤희, 2005; 김혜진, 2006; 박정희, 2010;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8; 서순람, 김정복, 2002, 2006;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원애경, 2005; 이완정, 2002; 이은희, 2003; 최옥순, 2004), 비행또래집단과 비행문제(박영신, 김의철, 2010;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한현아, 도현심, 2008), 청소년 자살문제(강병철, 하경희, 2005; 김교헌, 2004; 김기환, 전명희, 2000; 김현실, 2005; 문경숙, 2006; 보

건복지부, 2005; 심미영, 김교현, 2005; 이경진, 조성호, 2004;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2011; 전영주, 2001; 홍영수, 2005; 홍영수, 전선영, 2005), 학대아동·청소년 상처문제(권해수, 2003; 박정희, 2010; 신혜섭, 송미연, 2006; 이완정, 2002), 다문화 가정 자녀문제(고유미, 이정윤, 2009; 김순규, 2011;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박순희, 2009; 변은주, 심혜숙, 2010; 안권순, 2009; 이경희, 2011; 이덕희, 2010; 최성보, 2011; 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휴대폰 및 인터넷 중독문제(구현영, 2009, 2010; 김영민, 임영식, 2011; 김윤희, 2005;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성윤숙, 2006, 2008; 아영아, 정원철, 2010; 양돈규, 2003; 오은정, 장성화, 2009; 이정숙, 명신영, 2007; 이형하, 2003; 장석진, 조민아, 송소원, 2011; 최나야, 한유진, 2006), 청소년 문화(김미윤, 2003; 박영신, 김의철, 2002), 부모-자녀 관계(박영신, 김의철, 2000, 2003, 2004; 이희선, 선우현정, 2011; 최지은, 신용주, 2003;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기혜, 박영신, 2003, 2004) 등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이들의 주된 내용은 결과현상에 주목하고 대중적 현상진단에 주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청소년들에 의해 표출되고 있는 문제들이 원초적으로 관련된 개인의 성격, 습관, 가치관, 정신건강 문제 등 개인병리와 사회 분위기 등 사회병리와와의 합작품이라고 이해할 때 보다 근원적, 진단적, 종단적 접근의 연구태도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교육적 필요성과 사회적 중요성에 착안하여, 중·고등학생들의 성장과정의 상처가 열등감과 성격장애 그리고 정신건강 간에 어떤 관계와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가의 연구를 통해 교육적 시사점을 찾는 데 본 연구

의 목적이 있다.

### 성장과정의 상처와 열등감 문제

인간은 성장과정과 생활장면(학교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상처를 받게 된다. 문제는 상처의 수준과 종류이다.

첫째는 건강치 못한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처다. 사랑과 인정, 안정과 안전, 이해와 공평성, 행복과 자존감의 상처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상처들은 그 피해자인 자녀들로 하여금 낮은 수준의 자존감과 자신감, 증오와 불신, 심한 우울과 불안, 공포와 초조,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를 누적해 열등감과 성격장애로 악화되고, 결과적으로 신경질적이며 대인관계가 원만치 않아 반사회적이거나 비사회적이 되고 인격장애와 정신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Hendrix, 2004), 심지어 질병이 잘 걸리고 잘 낫지 않는 것도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선택한 결과로서의 성격적인 면과 순응하지 않고 처방과 지침, 제 규정을 거부하는 습관적 행동과 직결된다(Mcginnis & Foege, 1993; Nocack, 2003).

둘째는 학교생활에서 받는 상처다. 학업의 성취도 면에서 적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로 인해 교우관계, 사제관계에 문제가 파생하며, 교사의 사려깊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 무시와 열등감 고취, 실패와 좌절감 누적, 그리고 갈등과 따돌림을 체험하게 된다.

끝으로 역사와 사회 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상처를 받게 된다. 저질 정치문화와 인격장애 선동꾼들의 정치·노사·언론·NGO활동 등 전 분야에서의 ‘끝없는 한(恨) 풀이’ 과정을 통해 증오심과 파괴의식의 고취, 박탈·피해의

식의 파종(播種), 불행·억울감정을 체험·누적시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성이 조악(粗惡)해 진다는 점이다(김홍규 외, 2012).

더욱이 청소년들은 생리적 욕구보다는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이 욕구불만의 핵심이 되고, 이 같은 심리적 욕구불만은 일종의 결핍욕구(缺乏欲求)로서 이것이 제대로 해소·충족·승화되지 않으면 인간성의 미성숙, 자아실현의 불가능, 정신적 혼란, 인생과 미래에 대한 회의(懷疑), 성취·획득의 실패에 따른 분노, 용기의 상실, 삶과 존재에 대한 절망과 자기혐오, 회·노·애·락 등 감정기능의 상실인 언헤도니아(anhedonia) 증후로 심신이 황폐해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김홍규, 2006).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열등감의 경우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인간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할 때, 자신의 신체적 조건, 가정적 조건, 학업적 조건, 사회적 조건과 환경, 그리고 개인적인 ‘지적 영역, 정서·심리적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 성적 영역, 정신적 영역’(김홍규, 이만표, 2009) 등에서 타인에 비해 부족·열등하다고 느끼면, 정도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 이 열등감은 그 수준과 개인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극복·승화시키려는 건전한 의지와 노력, 성공적인 자기개발과 자기실현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에게는 긍정적 기능으로 작용하겠지만, 반대로 그 열등감의 수준이 지나치거나 본인의 극복 의지와 강인한 정신력이 부족하다면, 특히 모든 면에서 미숙한 청소년의 경우는 정상적인 대인관계,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양한 종류의 청소년 문제를 유

발시키며, 급기야 우울증, 성격장애, 정신질환, 자살 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정서적 학대’는 성장과정의 상처로 작용하여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고(Kaplan et al., 1999; Mullen et al., 1996), 낮은 자아 존중감(김아다미, 2001)과 사회적 능력의 결손(Bolger et al., 1998; 김현주, 2002)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 심리적 기능손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우울증상을 보일 가능성이 3배 높고, 품행장애를 보일 가능성도 약 4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김은정, 2000; 허정윤, 유영달, 2010)도 주목되고, 가정환경의 건강성이 청소년의 정서지능과 사회지능 및 행복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한순미, 2011)도 직접적인 시사가 된다. 그리고 아동기의 학대 경험이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경로라기보다는, 어떤 다른 변인들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적 경로일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가정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조춘범, 조남홍, 2011; 김은정, 김진숙, 2008; Krause et al., 2003)된다.

이 같은 성장과정의 상처, 그로 인한 심리적 열등감과 욕구불만, 심리·정신적인 소외감과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기력 증후’(apathy syndrom, 笠原 藤, 1983; 山田 和夫, 1990; 鐵島清毅, 1993, 원애경, 2005), 또는 심리·사회적 성숙에 문제가 된다(신기철, 2006)든지 또는 퇴각신경증(退却神境症)·등교거부증상(不登校症狀)(Nisseikyo.or.jp, 1996), 현대의 병이요 일종의 신경증적 증상으로 회피자폐증후(狩野力八郎, 近藤直司, 2000) 또는 청소년

좌절증후군(稻村 博, 1994), 쇠증후군(福井康之, 1985)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크다.

### 청소년의 성격장애와 정신건강 문제

성격장애 문제는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에서 분류한 ‘DSM-IV-TM’에 의거하여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인격장애’(3개 유형의 성격장애)와 ‘연극적·감정적·변덕스런 경향의 인격장애’(4개 유형의 성격장애), 그리고 ‘불안해하는 경향을 보이는 인격장애’(3개 유형의 성격장애)로 구분하여 그 특성과 진단기준 및 형성 원인 등에 대해 정리해 주고 있는데, 이들 인격장애의 직·간접 원인이 부모 요인과 가정환경, 부모의 바람직하지 못한 양육태도, 성장과정에서의 인간화·사회화·문화화의 미성숙 문제에 관련되고 있다(김홍규, 원애경, 2007).

그리고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의 문제도 개인의 ‘의식, 감정, 사고과정(思考過程), 행동, 사고내용, 지각, 기억, 지능’ 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역시 ‘유전, 신체적 요소, 정신적 요소, 사회문화적인 요소’(한동세, 1974; Goddington & Wallick, 2002)이다.

그 같은 시각들이 연구에도 반영되어 성장과정의 상처, 또는 아동기의 학대경험과 후속 매개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자기효능감 요인(조은정, 2008), 통제 의 소재(조은정, 2008; 조춘범, 조남홍, 2011),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김혜인, 김은정, 2007; 김은정, 김진숙, 2008), 인지 도식과 대처방식(김은정, 김진숙, 2008) 그리고 열등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김형수, 김홍규, 2006)과 청소년의 가정건강성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

향(민동일, 2007), 성장과정에서의 청소년 상처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원애경, 2005)는 연구 등이 그것이다.

특히 김형수와 김홍규의 연구(2006)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가정적 열등감은 질병적 성격과 편집증 증후에 영향을 주고, 사회적 열등감은 성격장애와 상관이 있으며, 신체적 열등감은 울화병 증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중학생의 신체적 열등감은 불안장애, 울화병 증후, 편집증 증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열등감은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가정적 열등감은 분노·폭발형 증후와 편집증 증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고등학생의 신체적 열등감은 질병형 성격에, 가정적 열등감은 불안장애와 울화병 증후 그리고 편집증 증후에, 학업적 열등감은 성격장애에 각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애경(2005)의 연구에서도, “자신감·자존심·소외 따돌림의 상처는 질병형 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인정·불행·자신감·자존심의 상처는 불안장애와 관련이 있고, 소외따돌림·사랑·불행의 상처는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소외따돌림·인정의 상처는 울화병 증후에 관련이 있고, 피해·박탈의식의 상처는 청소년의 분노·폭발형 증후에 관련이 있고, 소외·따돌림의 상처는 청소년들의 편집증 증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

결국 성장과정의 상처, 정서적 학대와 외상이 열등감으로 바뀌고, 그것이 악화되어 ‘열등 콤플렉스’로 진전되고, 그것이 누적 강화되어 무능감, 절망감, 불안감, 불행감, 좌절감을 낳게 하며, 궁극적으로 무기력 증후군, 청소년 좌절증후군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성장과정의

상처와 열등감 문제에 교육적·전문적으로 조기 개입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최근의 연구(김홍규 외, 2012)에서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 2,717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바에 따르면, 성장과정의 상처를 받은 학생은 전체의 72.2%, 남학생의 74.1%, 여학생의 68.3%, 초등학생의 78.9%, 중학생의 68.8%, 고교생의 72.0%로 집계되었다. 또한 열등감의 경우는 전체 1.0%, 남학생의 0.8%, 여학생의 1.3%, 초등학생의 0.5%, 중학생의 1.3%, 고교생의 0.9%로 밝혀졌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 분노·폭발성향이 남학생의 6.0%, 여학생의 8.5%, 초등학생의 6.4%, 중학생의 6.7%, 고교생의 7.3%로 확인되었고, 편집증 증후는 남학생(2.4%)보다는 여학생 비율(3.1%)이 약간 높고, 초등학생(2.1%), 중학생(2.9%), 고교생(2.5%)의 학교급별 차이도 보였다. 화병증후는 남학생(1.8%), 여학생(3.1%), 초등학생(2.6%), 중학생(1.8%), 고교생(2.7%)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끝으로 인격장애 학생의 비율도 특이한 경향을 보이는 학생이 전체의 5.5%, 변덕스런 경향의 학생도 전체의 8.6%, 불안해 하는 경향의 학생도 10.5%로 밝혀져 주목되었다.

청소년들이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3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11)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상담한 문제는 가족문제(24.8%), 대인관계(19.2%), 정신건강(18.9%), 학업·진로(13.5%), 일탈 및 비행(8.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는 2007년(8%)에 비해 10.9%포인트 증가해 다른 문제들에 비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정신건강을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8.5%를 차지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정신건강(5.6%) 문제가 아직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강박·불안(13.5%), 자살문제(7.6%), 우울·위축(6.7%), 자해(4.4%) 순으로, 중학생은 우울·위축(13.0%)이 가장 많았고 강박·불안(4.8%)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구본용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강박·불안으로 인한 자살문제 상담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자살 예방 및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동아일보, 연합뉴스, 2011. 11. 22. 재인용).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 부모로부터 독립 준비,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발달과업 급증 등에 따라, 적응에 혼란을 겪으며 때로는 문제행동을 일으켜 주위사람들을 놀라게도 한다. 최근 자살, 학교폭력, 각종중독 등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 가지만 이 같은 현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심각하게 생각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필요한 정보를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제공할 목적이 있으며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각 변인간의 차이분석(t/F검증), 둘째, 성장과정의 상처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셋째, 성장과정의 상처가 관련 변인에 미치는 영향분석(중다회귀분석), 넷째,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분석과 매개변수 검증을 위한 Sobel-test 실시.

## 방 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2011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인천광역시 8개구 소재의 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여학생 2,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 학생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김홍규

(2011)가 개발한 ‘위기청소년의 진단척도’이며 척도내용은 ‘성장과정 상처(7개문항)’, ‘열등감(8개문항)’, ‘성격장애(41개문항)’, 정신건강(20개문항)등 4개영역 7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는 연구 및 조사대상을 고려하여 Likert 3점 척도(3점: 높음, 2점: 보통, 1점: 낮음)로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4이며 표 2와 같다.

본 도구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건강 영역과 성격장애 영역의 문항은 APA(2000a)의 DSM-IV-TR의 진단기준과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N=2,119)	남자	1,490	70.3
	여자	629	29.7
	계	2,119	100.0
학교급 (N=2,119)	중학생	1,217	57.4
	고등학생	902	42.6
	계	2,119	100.0
생활수준 (N=2,108)	풍족	513	24.3
	보통	1,367	64.9
	빈곤	228	10.8
	계	2,108	100.0
부 학력 (N=2,068)	고졸 이하	1,250	60.5
	대졸 이상	818	39.5
	계	2,068	100.0
모 학력 (N=2,060)	고졸 이하	1,453	70.5
	대졸 이상	607	29.5
	계	2,060	100.0
학업수준 (N=2,117)	우수	543	25.7
	보통	972	45.9
	미흡	602	28.4
	계	2,117	100.0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계수

영역	문항 수	신뢰도 계수
성장과정 상처	7	.896
열등감	8	.833
성격장애	41	.939
정신건강	20	.939
전체	76	.964

APA(2000b)의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그리고 Narramore의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Problems’과 이근후, 박경화(1988)가 옮긴 ‘정신 사례연구집’, 島藺安雄·保崎秀夫의 ‘靑少年の社會病理와 西園昌久의 思春期の精神障害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이를 원애경(2005)과 민동일(2007)의 박사학위논문의 도구로 사용했으며, 일부 수정 보완한 것이 이 연구의 도구이다.

둘째, 열등감 영역과 성장과정의 상처 영역은 福井康之의 靑年期の不安と成長, 稻村 博의 思春期挫折症候群, 그리고 이상란(2003)의 박사학위논문(동경대)의 도구를 참고로 제작하였다. 이 도구 역시 원애경의 학위논문에서 활용했으며 이를 보완·수정한 것이 이 연구의 도구이다.

#### 자료처리 및 분석

중·고교 남·여학생 2,119명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각 변인간의 차이분석을 위해 t/F검증을 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하였다. 또한, 성장과정의 상처와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위해 상관계수를 구하고 성장과정의 상처가 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와 매개변수의 효과검증을 위해 경로분석 및 Sobel-test를 하였다.

## 결 과

### 성장과정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의 차이분석

####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중·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변인에 대한 t-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른 변인의 차이검증에서 성장과정의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모두 여자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결과 안정감 상처는  $p < .05$ 에서, 사랑 상처는  $p < .01$ 에서, 자존심 상처, 자신감 상처, 평등감 상처, 안정감 상처, 불행감 상처는 모두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성격장애는  $p < .05$ 에서, 열등감과 정신건강은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여학생이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에서 상처를 더 받았으며, 열등감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에서도 더 나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학교급에 따른 차이분석

중·고등학생들의 학교급에 따른 변인에 대한 t-검증결과, 성장과정 상처의 경우, 중학생은 자존심 상처, 자신감 상처, 평등감 상처, 인정감 상처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변인	성별	N	M	SD	t	
성장과정 상처	사랑 상처	남자 1,490	1.98	1.104	-2.638**	
		여자 628	2.12	1.045		
	안정감 상처	남자	1,490	2.28	1.042	-2.308*
		여자	627	2.39	1.006	
	자존심 상처	남자	1,488	2.63	1.124	-7.296***
		여자	629	3.02	1.140	
	자신감 상처	남자	1,484	2.46	1.119	-4.720***
		여자	623	2.71	1.197	
	평등감 상처	남자	1,487	2.30	1.118	-4.437***
		여자	624	2.54	1.158	
	인정감 상처	남자	1,490	2.55	1.117	-4.616***
		여자	629	2.79	1.129	
	행복감 상처	남자	1,490	2.34	1.151	-3.887***
		여자	629	2.56	1.153	
열등감	남자	1,490	2.11	.717	-8.220***	
	여자	629	2.37	.664		
성격장애	남자	1,490	2.25	.575	-2.551*	
	여자	629	2.32	.533		
정신건강	남자	1,490	2.07	.729	-5.094***	
	여자	629	2.26	.780		

\* $p < .05$ , \*\* $p < .01$ , \*\*\* $p < .001$

고등학생은 사랑 상처, 안정감 상처, 행복감 상처에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의 경우, 고등학생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결과 성격장애와 정신건강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받으며 열등감도 갖지만, 특히 고등학생은 성격장애 증세가 더 크고, 정신건강도 더 나쁘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중·고등학생들의 생활수준별에 따른 변인에 대한 F-검증결과 표 4와 같다.

성장과정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의 모든 변인에서 하류층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에 대한 F-검증결과,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과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모두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자존심 상처, 자신감

표 4.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분석

변인	생활수준	N	M	SD	F	1)	2)	3)	
성장 과정 상처	사랑 상처	상류층	513	1.79	1.072	22.094***	*		*
		중류층	1,366	2.05	1.044		*	*	
		하류층	228	2.34	1.275			*	*
	안정감 상처	상류층	512	2.06	1.029	33.308***	*		*
		중류층	1,367	2.34	0.999		*	*	
		하류층	227	2.71	1.107			*	*
	자존심 상처	상류층	512	2.56	1.152	11.863***	*	*	
		중류층	1366	2.79	1.120		*		
		하류층	228	2.96	1.143			*	
	자신감 상처	상류층	512	2.31	1.143	13.742***	*	*	
		중류층	1,357	2.60	1.124		*		
		하류층	227	2.69	1.245			*	
	평등감 상처	상류층	509	2.15	1.113	13.610***	*	*	
		중류층	1,363	2.43	1.115		*		
		하류층	228	2.52	1.240			*	
	인정감 상처	상류층	513	2.33	1.154	25.276***	*	*	
		중류층	1,367	2.70	1.083		*		
		하류층	228	2.84	1.210			*	
행복감 상처	상류층	513	2.03	1.155	65.928***	*		*	
	중류층	1,367	2.44	1.097		*	*		
	하류층	228	3.04	1.203			*	*	
열등감	상류층	513	1.94	.667	68.632***	*		*	
	중류층	1,367	2.21	.689		*	*		
	하류층	228	2.85	.752			*	*	
성격장애	상류층	513	2.19	.587	11.171***	*		*	
	중류층	1,367	2.28	.553		*	*		
	하류층	228	2.39	.559			*	*	
정신건강	상류층	513	2.00	.747	13.884***	*		*	
	중류층	1,367	2.15	.744		*	*		
	하류층	228	2.30	.755			*	*	

\* $p < .05$ , \*\*\* $p < .001$

상처, 평등감 상처, 인정감 상처는 ‘상류층과 중류층’,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게 보인다. 한편, 사랑 상처, 안정감 상처, 행복감 상처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

강은 모든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정생활수준이 하류층 학생일수록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더 받고, 열등감을 더 느끼고 있으며, 성격장애와 정신건강에서도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부모학력에 따른 차이분석

중·고등학생들의 아버지 학력에 따른 변인에 대한 t-검증결과,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과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은 고졸이하 학생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결과 안정감 상처와 열등감에 대해서만 아버지 학력에 따른 평균점수 차이가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버지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들이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더 받았지만, 이 학생들은 성장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며 불안정하게 성장한데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도 더 느낄 정도로 아버지 학력이 자녀의 열등감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고등학생들의 어머니 학력에 따른 변인에 대한 t-검증결과,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과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은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이하 학생들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에 대한 t-검증결과 안정감 상처, 행복감 상처, 성격장애는  $p < .05$ 에서, 정신건강은  $p < .01$ 에서, 열등감은  $p < .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들이 안정감 상처와 행복감 상처를 더 받았으며, 열등감도 더 느끼고, 성격장애도 더 보이며,

정신건강도 더 나빠 보이는 등 어머니의 저학력은 아버지의 저학력보다 자녀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더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학업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중·고등학생들의 학업수준에 따른 변인에 대한 F-검증결과, 성장과정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등 모든 변인에서 학업수준이 하위권 학생들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평균차이에 대한 F-검증결과, 자신감 상처, 인정감 상처와 성격장애는  $p < .01$ 에서, 사랑의 상처, '안정감 상처, 평등감 상처, 행복감 상처와 열등감, 정신건강은  $p < .001$ 에서 유의했다.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자신감 상처, 평등감 상처, 인정감 상처, 정신건강은 상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은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간에서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격장애는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랑 상처, 안정감 상처, 행복감 상처, 열등감 등은 모든 집단 간 평균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업수준이 하위권 학생이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더 받았으며, 열등감도 더 느끼고, 성격장애 증세도 더 보이며, 정신건강도 나쁜 것으로 볼 때, 학업수준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학업수준이 하위권 학생들은 부정적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과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중·고등학생들의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

표 5. 성장과정 상처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분석

변인	성장과정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사랑 상처	안정감 상처	자존심 상처	자신감 상처	평등감 상처	인정감 상처	행복감 상처			
사랑 상처										
안정감 상처	.730**									
성 장 과 정	자존심 상처	.427**	.454**							
	자신감 상처	.490**	.508**	.670**						
상 처	평등감 상처	.503**	.483**	.487**	.612**					
	인정감 상처	.491**	.479**	.587**	.694**	.604**				
	행복감 상처	.603**	.601**	.466**	.553**	.558**	.579**			
	열등감	.338**	.371**	.197**	.242**	.274**	.281**	.394**		
	성격장애	.251**	.249**	.140**	.155**	.207**	.198**	.272**	.544**	
	정신건강	.299**	.311**	.185**	.197**	.243**	.247**	.330**	.531**	.768**

\*\* $p < .01$

인과 관련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과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은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p < .01$ )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과 성격장애, 정신건강 간 상관관계, 그리고 성격장애와 정신건강 간 상관관계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p < .01$ )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열등감과 사랑 상처는  $r = .338(p < .01)$ , 안정감 상처는  $r = .371(p < .01)$ , 행복감 상처는  $r = .394(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정신건강과 안정감 상처는  $r =$

$.311(p < .01)$ , 행복감 상처는  $r = .330(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약 30~40%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열등감과 성격장애는  $r = .544(p < .01)$ , 정신건강은  $r = .531(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성격장애와 정신건강은  $r = .768(p < .01)$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약 50~80%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랑 상처, 안정감 상처, 행복감 상처를 갖고 있는 학생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도 부정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학생은 성격장애와 정신건강도 부정적일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과정 상처가 관련변인에 미치는 영향분석

중·고등학생들의 성장과정 상처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표 6과 같이 열등감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독립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행복감 상처( $\beta=.241$ )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간의 중다상관계수  $R$ 은 .434이며, 이는 전체변량 중 18.9%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하위변인 중 인정감 상처( $\beta=.063$ )는  $p<.05$ 에서, 행복감 상처( $\beta=.241$ ), 안정감 상처( $\beta=.189$ )는  $p<.001$ 에서

표 6. 성장과정 상처가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i>B</i>	<i>SE</i>	$\beta$	<i>t</i>	<i>p</i>
(상수)	1.454	.043		34.044	.000
사랑 상처	.031	.020	.048	1.558	.119
안정감 상처	.130	.021	.189	6.125***	.000
자존심 상처	-.029	.017	-.047	-1.714	.087
자신감 상처	-.026	.020	-.042	-1.312	.190
평등감 상처	.022	.017	.034	1.249	.212
인정감 상처	.040	.019	.063	2.082*	.038
행복감 상처	.148	.018	.241	8.412***	.000
F=69.344( $p<.001$ )		Multiple $R=.434$ $R^2=.189$			

\* $p<.05$ , \*\*\* $p<.001$

표 7. 성장과정 상처가 성격장애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i>B</i>	<i>SE</i>	$\beta$	<i>t</i>	<i>p</i>
(상수)	1.872	.036	-	52.401	.000
사랑 상처	.041	.017	.080	2.452*	.014
안정감 상처	.050	.018	.091	2.796**	.005
자존심 상처	-.008	.014	-.016	-.544	.587
자신감 상처	-.040	.017	-.081	-2.361*	.018
평등감 상처	.033	.015	.066	2.276*	.023
인정감 상처	.025	.016	.050	1.567	.117
행복감 상처	.075	.015	.153	5.060***	.000
F=30.628( $p<.001$ )		Multiple $R=.305$ $R^2=.093$			

\* $p<.05$ , \*\* $p<.01$ , \*\*\* $p<.001$

표 8. 성장과정 상처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B	SE	$\beta$	t	p
(상수)	1.461	.046		31.519	.000
사랑 상처	.051	.022	.074	2.337*	.020
안정감 상처	.098	.023	.135	4.249***	.000
자존심 상처	-.001	.019	-.001	-0.036	.971
자신감 상처	-.059	.022	-.091	-2.731**	.006
평등감 상처	.037	.019	.056	1.963*	.050
인정감 상처	.047	.021	.070	2.235	.260
행복감 상처	.117	.019	.181	6.132***	.000
F=47.127(p<.001)		Multiple R=.369 R <sup>2</sup> =.136			

\*p<.05, \*\*p<.01, \*\*\*p<.001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복감 상처, 안정감 상처, 인정감 상처 순으로 열등감에 영향을 주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과 같이 성격장애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독립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행복감 상처( $\beta=.153$ ,  $p<.001$ )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간의 중다상관계수 R은 .305이며 이는 전체변량 중 9.3%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하위변인 중 자신감 상처( $\beta=-.081$ ), 사랑 상처( $\beta=.080$ ), 평등감 상처( $\beta=.066$ )은  $p<.05$ 에서, 안정감 상처( $\beta=.091$ )은  $p<.01$ 에서, 행복감 상처( $\beta=.153$ )는  $p<.001$ 에서 유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복감 상처, 안정감 상처, 자신감 상처, 사랑 상처, 평등감 상처 순으로 성격장애에 영향을 주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과 같이 정신건강을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독립변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행복감 상처( $\beta=.181$ ,  $p<.001$ )로 나타났다. 독립변인간의 중다상관계수 R은 .369이며 이

는 전체변량 중 13.6%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하위변인중 사랑 상처( $\beta=.074$ ), 평등감 상처( $\beta=.056$ )는  $p<.05$ 에서, 자신감 상처( $\beta=-.091$ )은  $p<.01$ 에서, 행복감 상처( $\beta=.181$ )와 안정감 상처( $\beta=.13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행복감 상처, 안정감 상처, 자신감 상처, 사랑의 상처, 평등감 상처 순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며,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경로 분석

중·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직·간접 효과와 매개변수의 효과검증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을 나타낸 경로모형과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경로모형과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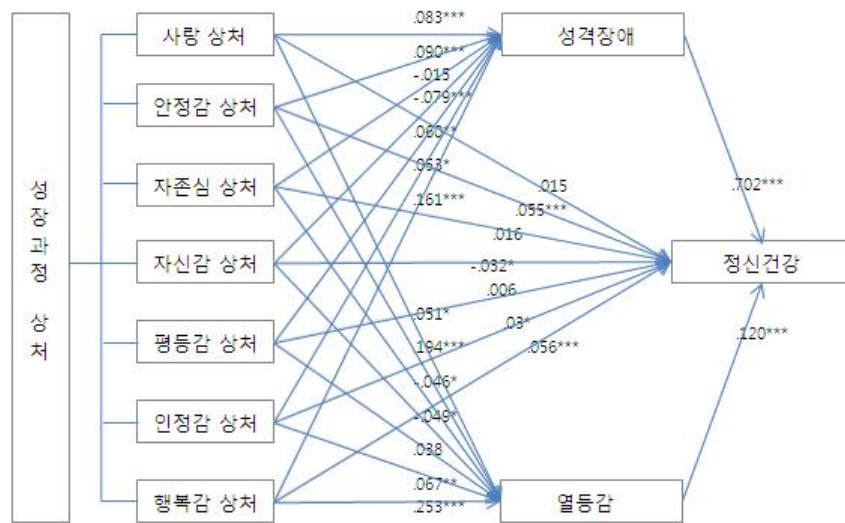


그림 1.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간 경로모형과 경로계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정의 상처 중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위변인은 행복감 상처( $\beta = .056, p < .001$ ), 안정감 상처( $\beta = .055, p < .001$ ), 자신감 상처( $\beta = -.032, p < .05$ ), 인정감 상처( $\beta = .03, p < .05$ )다. 둘째, 성격장애를 매개변수로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행복감 상처( $\beta = .161, p < .001$ ), 안정감 상처( $\beta = .090, p < .001$ ), 사랑 상처( $\beta = .083, p < .001$ ), 자신감 상처( $\beta = -.079, p < .001$ ), 평등감 상처( $\beta = .060, p < .01$ ), 인정감 상처( $\beta = .053, p < .05$ )다. 셋째, 열등감을 매개변수로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행복감 상처( $\beta = .253, p < .001$ ), 안정감 상처( $\beta = .194, p < .001$ ), 인정감 상처( $\beta = .067, p < .01$ ), 사랑 상처( $\beta = .051, p < .05$ ), 자신감 상처( $\beta = -.049, p < .05$ ), 자존심 상처( $\beta = -.046, p < .05$ )다. 넷째, 성격장애와 열등감을 매개변수로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랑 상처( $\beta = .083, p < .001$ ;  $\beta = .051, p < .05$ ), 안정감 상처( $\beta = .090,$

$p < .001$ ;  $\beta = .194, p < .001$ ), 자신감 상처( $\beta = -.079, p < .001$ ;  $\beta = -.049, p < .05$ ), 인정감 상처( $\beta = .053, p < .05$ ;  $\beta = .067, p < .01$ ), 행복감 상처( $\beta = .161, p < .001$ ;  $\beta = .253, p < .001$ )다. 다섯째, 성격장애는 정신건강( $\beta = .702, p < .001$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열등감은 정신건강( $\beta = .120, p < .001$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열등감과 성격장애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변량 분해를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와 같이 성장과정 상처가 성격장애와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행복감 상처가 총효과  $.19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감 상처  $.142$ , 사랑 상처  $.079$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비교해 보면 모두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행복감의 경우 간접효과가  $.143$ 로 상대



표 9.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 관계경로의 공변량 분해

종속변인	독립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정신건강	← 사랑 상처	.015	.064	.079
정신건강	← 안정감 상처	.055	.086	.142
정신건강	← 자존심 상처	.016	-.016	.000
정신건강	← 자신감 상처	-.032	-.062	-.093
정신건강	← 평등감 상처	.006	.047	.053
정신건강	← 인정감 상처	.030	.045	.075
정신건강	← 행복감 상처	.056	.143	.199

표 10. 모형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종속변인	경로	매개변인	Sobel Test z-value
정신건강	← 사랑 상처	성격장애	7.393***
		열등감	3.476**
정신건강	← 안정감 상처	성격장애	7.988***
		열등감	6.596***
정신건강	← 자존심 상처	성격장애	-1.499
		열등감	-3.413**
정신건강	← 자신감 상처	성격장애	-7.725***
		열등감	-3.586***
정신건강	← 평등감 상처	성격장애	5.922***
		열등감	2.917**
정신건강	← 인정감 상처	성격장애	5.246***
		열등감	4.479***
정신건강	← 행복감 상처	성격장애	14.760***
		열등감	7.066***

\*\*\* $p < .001$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정신건강에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영향력은 성장과정 상처의 직접효과보다 전반적으로 성격장애와 열등감을 통한 간접효과임

을 알 수 있다.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매개변수들의 효과검증을 위해 Sobel-test를 실시하였다.

표 10과 같이 성장과정 상처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데, 열등감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며, 성격장애 변인은 자존심 상처 하위 변인만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변인에 대하여 유의한 매개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중·고등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정 상처만 줄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낮추고 성격장애를 갖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할 때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 논 의

본 연구조사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성장과정 상처,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의 차이분석 결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다.

성장과정 상처와 열등감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들은 변인에 따라 서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하류층 학생이, 부모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이, 학업수준이 하위권 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그 누구도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신체적 상처는 복원력이 강해 쉽게 아물지만 심리·정서적 상처는 심한 경우 정서적 학대가 되어 분노,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Mullen et al., 1996; Mcgee et al., 1999)로 악화되고, 낮은 자아존중감(김아다미, 2001), 사회적 능력의 결손(김현주, 2002; Bolger et al., 1998)은 물론 최악의 경우 자살 시도와 관련이 된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받는 상처는 부모,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 교사와

사회 환경에서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초의 애착대상인 부모에게서 대부분 받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이 있다(Sedlak & Broadhurst, 1996). 그리고 또래들에게서 받은 부정적 경험(상처) 역시 고독감과 사회적 불만족이 높고, 사회적 유능감을 낮춘다(Gilmartin, 1987; Rubin et al., 1989; Hymel et al., 1990; Rape & Melville, 1997)는 점에 주목할 때 성장과정의 상처문제와 열등감 문제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

성격장애와 정신건강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경제적으로 하류층(빈곤)학생이,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인 학생이, 학업수준이 하위권(미흡)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 또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여학생과 고등학생, 경제적 빈곤학생과 저학력의 어머니,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성격장애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력 위주의 사회에서 학업성적과 대학진학 문제로 항상 긴장상황에 처해 있는 시기라는 점이 연상된다. 그러나 나머지의 경우는 이들 모두가 사회적 약자라는 데 착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실제로 아동기에 학대·모욕·수치스러움 등 외상경험은 그 피해자의 인지·정서·행동에 영향을 주어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사회적 불안, 낮은 유능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적 사건(traumatic event)로 경험된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결과이다(Vernberg et al., 1992; Gelinis, 1993; Dutton, 1999; 오경자, 양윤란, 2003; 김은정, 2000). 또한 정서·심리적 외상 등 성장과정의 상처는 성인기의 우울, 불안 등 정서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는 선행연구(Kaplan et al., 1999; Spertus et al, 2003; 이유경, 2005)를 뒷받침해 준다.

둘째, 성장과정의 상처(하위변인)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모든 변인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열등감과 성격장애, 정신건강 간 상관관계, 그리고 성격장애와 정신건강 간 상관관계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 $p < .01$ )에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렇듯 성장과정의 상처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과정상의 문제요 인과관계적 문제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성장과정의 상처인 정서적 외상경험은 낮은 사회적 유능감과 사회적 능력에 결손을 초래하고, 낮은 자아존중감과 도피하려는 경향, 새로운 상황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을 느끼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부적응적 행태(김혜영, 2002)를 보일 정도로 열등감에 젖게 되고, 급기야 성격장애(Johnson, 2001)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울이나 불안 등은 성격장애 등과 연계하여 정신적 장애인 정신건강 문제로 악화된다는 일치된 연구결과는 자녀 및 청소년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셋째,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들이 관련 변인들에 미치는 영향분석결과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한다.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들이 열등감에 미치는 영향은 행복감 상처, 안정감 상처, 인정감 상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과거 어릴 때나 지금이나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성장하였다면, 부모들로부터 항상 장점보다는 단점만 지적당했다면 열등감을 더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존재

감을 일깨워주고 기대와 역할에 대해서 끊임 없이 대화하며 생활하는 것이 요구된다. 행복, 안정, 안전의 상처가 열등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가정의 문제이며,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는 부모-자녀관계와 같이 개인과 의존적 관계, 애착의 관계에서 고의로 상처(타격)를 주는 외상이 우연적인 사건이나 사고에 의한 외상보다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Gelinas, 1993)를 재음미하게 된다(Allen, 1995; 김은정, 2000).

성장과정 상처의 하위변인들이 성격장애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행복감 상처, 안정감 상처, 자신감 상처, 사랑 상처, 평등감 상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복감·안정감 상처의 원인 외에도 부모의 기대에 부응을 못할 경우 꾸지람과 무능함을 지적받았다든지,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형제·자매간에 차별대우를 받으며 성장했다면 성격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심리적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가족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부모간의 행복도, 부모-자녀관계가족의 윤리적 도덕적 건강이 중요하다는 신기철(2006)의 선행연구에서 시사를 받게 된다.

넷째, 경로모형과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그리고 경로분석과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하위변인들의 직·간접효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된다.

경로모형과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살펴 본 결과, ‘성장과정 상처’가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하위 요인은 ‘행복감 상처’, ‘안정감 상처’(불안), ‘자신감 상처’(열등감), ‘인정감 상처’(무시와 모멸감) 순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3개 매개변수(성격장애, 열등

감 그리고 성격장애와 열등감이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격장애’를 매개변수로 ‘정신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성장과정 상처’요인은 ‘사랑, 안정감, 자신감, 평등감, 인정감, 행복감 상처’ 등의 요인 순으로 밝혀졌다. 또한 ‘열등감’을 매개변수로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사랑, 안정감, 자존심, 자신감, 인정감, 행복감 상처’ 순으로 밝혀져 평등감 상처(편애)요인 외에는 모든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격장애와 열등감’을 매개변수로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사랑, 안정감, 자신감, 인정감, 행복감 상처’ 순으로 밝혀져 ‘자존심’과 ‘평등감 상처’ 요인을 제외한 요인들이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성격장애’( $\beta=.702, p<.001$ )와 ‘열등감’( $\beta=.120, p<.001$ )이 직접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경로분석 및 경로계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성장과정 상처가 ‘성격장애’와 ‘열등감’을 매개로 하여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중 ‘행복감 상처’와 ‘안정감 상처’가 총효과 .199, .142로 각각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행복감’과 ‘불안감’의 상처가 정신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간의 경로모형에서 설정한 매개변수들의 효과검증(Sobel-test) 결과, ‘성장과정 상처’가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데 ‘열등감’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며, ‘성격장애’ 변인은 ‘자존심 상처’ 하위변인만을 제외하고 모든 하위 변인에 대하여 유의미한 매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생활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장과정의 상처’만 줄여서는 안 되며, ‘열등감’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성격장애’로 악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교육적 배려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끝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를 통하여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논문 게재를 희망하는 연구자들은 기존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에 발행된 논문을 최소 2편 이상 참고하고 인용하여 학문적 가치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한다.

### 참고문헌

-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2(3), 267-289.
- 고유미, 이정운 (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7(1), 49-63.
- 곽수란 (2006). 청소년의 학교 적응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1), 1-26.
- 곽수란 (2011).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109-129.
-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29.
- 구자경 (2004).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2), 217-239.
- 구현영 (2009). 청소년을 위한 휴대전화 중독

- 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9(6), 818-828.
- 구현영 (2010). 고등학생의 휴대전화 중독과 예측 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6(3), 203-210.
- 권해수 (2003).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교현 (2004). 한국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55-68.
-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127-152.
- 김미윤 (2003). 사이버공간 경험의 의미와 청소년 문화. 청소년학연구, 10(3), 211-231.
- 김민 (2001). 자발적 학업중도탈락현상 발생요인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순규 (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아다미 (2001). 아동의 학대 경험이 자아 존중감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희, 유미숙 (2009).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3-15.
- 김영민, 임영식 (2011). 민주적 양육방식, 자아탄력성 및 휴대전화의존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의 구조모형 검증.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201-220.
- 김오남 (2005).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갈등, 그 대처행동 및 정신건강과 문제행동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2(4), 99-119.
- 김윤희 (2005).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정신건강모형 구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0).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김진숙 (2008). 아동기 외상과 초기 성인기 우울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2(3), 605-630.
- 김정운 (2006). 노는 만큼 성공한다. 서울: 21세기 북스.
- 김천기 (2002). 평준화의 왜곡과 자립형 사립고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12(3), 55-73.
- 김천기 (2004). 중등학생의 중퇴 방지를 위한 사회자본론적 접근에 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3), 21-39.
- 김현성 (2004). 집단따돌림 담론을 토해 본 청소년 주체형성과정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3), 41-63.
- 김현실 (2005). 청소년의 자살시도 예측요인. 아동간호학회지, 11(1), 34-42.
- 김현주 (2002).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과 이상화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1), 115-139.
- 김형수, 김홍규 (2006). 초·중·고 및 대학생들의 열등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교육의 이론과 실천, 11(1), 38-69.
- 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차별경험과 심리적 적응. 사회복지연구, 42(1), 117-149.
- 김혜수, 배성만, 현명호 (2007). 휴대전화 중독 경향성 청소년의 심리, 사회환경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83-393.
- 김혜영 (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김혜진 (2006). 아동의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규, 원애경, 최재향, 이호정 (2006). 인천

- 초·중·고교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비교연구. 인천학술진흥재단.
- 김홍규, 이기순, 한순미, 김광애, 이만표, 최재향 (2012).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성숙 및 성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 인천학술진흥재단, 8-182.
- 김홍규, 원애경 (2007). 상담심리학. 파주출판단지, 양서원.
- 김홍규, 이만표 (2009).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미래교육연구, 16(2), (사)참마음교육학회, 1-54.
- 김홍규, 이호정 (2009). 최신특수교육학. 파주출판단지: 양서원.
- 노 혁, 김미숙 (2003). 한국과 일본의 원조교제 성격 비교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187-209.
- 동아일보 (2011.11.22). <http://news.donga.com/Society>
- 문경숙 (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민동일 (2007). 청소년의 가정 건강성, 학교생활 건강성 및 자아 탄력성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선웅 (2002). 학생다운 몸의 규율과 학교위기. 교육사회학연구, 12(3), 75-99.
- 박수역 (2011).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1(1), 55-76.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 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2002). 한국사회의 교육적 성취. 교육심리연구, 16(4), 325-351.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영신, 김의철 (2004).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일탈행동.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특집호), 87-115.
- 박영신, 김의철 (2010). 친구가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3), 385-422.
- 박윤배, 김경식 (2002). 학교교육 주체들이 지각하는 교실붕괴 현상의 원인. 교육사회학연구, 12(3), 101-120.
- 박정희 (2010). 부부갈등과 초등학생의 표출불안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27-48.
- 박정희, 박정미 (2010).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시험불안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1(6), 125-134.
- 박진아, 이경숙, 신의진 (2008). 정서 및 행동장애 유아의 정신병리 유형에 따른 기질과 역기능적 정서조절. 한국심리학회지, 27(2), 523-545.
- 박창남, 도종수 (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207-238.
- 변은주, 심혜숙 (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가족지지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1(4), 175-176.
- 보건복지부 (2005).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
- 서순림, 김정복 (2002). 중학생이 지각한 가

- 죽지자와 정신건강.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2), 219-232.
- 성윤숙 (2006).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및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2), 291-321.
- 성윤숙 (2008).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 이용 동기 및 결과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9(4), 181-197.
- 신군자 (2004). 청소년 위기와 학교의 구조적 혁신 과제. 교육사회학연구, 14(3), 133-155.
- 신기철 (2006). 가정환경의 건강성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성숙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섭, 송미연 (2006). 부적응행동과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 초기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복지학, 11(1), 23-38.
- 신희경 (2006). 가해 청소년, 피해 청소년, 가해/피해 청소년 집단유형의 발달에 미치는 변인. 한국청소년연구, 17(1), 297-323.
- 심미영, 김교현 (2005). 한국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313-325.
- 아영아, 정원철 (2010). 청소년의 학업 및 가족 갈등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2(4), 257-277.
- 안권순 (2009). 다문화청소년의 건전 육성방안. 청소년학연구, 6(7), 99-128.
- 양돈규 (2003).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경향에 따른 대인관계 활동 및 만족도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0(3), 481-500.
- 양미진, 이은경, 이희우 (2006). 청소년의 심리 내적 요인과 환경요인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14(1), 53-76.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 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한국심리학회지, 22(3), 557-576.
- 오은정, 장성화 (2009).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 정체감 및 휴대전화 중독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1(3), 25-44.
- 원애경 (2005). 성장과정에서의 청소년 상처가 정신건강 및 무기력 증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경진,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경희 (2011). 한국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육사회학연구, 21(1), 111-131.
- 이근영, 최수찬, 공정석 (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83-107.
- 이근후, 박경화 공역 (1988). 정신진단 사례연구집. 하나의학사.
- 이덕희 (2010).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3), 77-96.
- 이상준 (2011). 가출 청소년의 사회적 탄력성과 위험·보호요인의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2), 271-291.
- 이완정 (2002). 발달과정에서의 위험요소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의 분석. 한국아동학회지, 23(1), 1-16.
- 이유경 (2005). 여대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이 심리적 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2003). 남·녀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그 결정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5, 52-76.
- 이정숙, 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

- 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67-86.
- 이춘재, 광금주 (2000). 집단 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 13(1), 65-80.
- 이현지, 박석돈 (2003). 가출 여성 청소년들의 삶과 사회적 환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1-19.
- 이형하 (2003). 인터넷 중독정도가 도서지역 청소년의 심리정서, 행동, 학업부적응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10(3), 263-287.
- 이희선, 선우현정 (201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 청소년 자아 탄력성,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6), 109-122.
- 임영식, 이장한, 김선일, 함진선 (2003). 청소년의 흡연행동. 청소년학연구, 10(3), 461-479.
- 임은희, 서현숙 (2007). 성역할 정체감과 청소년 비행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4(3), 53-78.
- 장석진, 조민아, 송소원 (2011). 중학생의 휴대전화 의존도,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88-105.
- 전영주 (2001). 우울증을 매개로한 청소년의 자살 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17.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용태, 배영태 (2003). 학교중도탈락의 요인에 관한 고찰. 교육학 논총, 24(1), 173-192.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2.
- 조준범, 조남홍 (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최나야, 한유진 (2006). 충동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인터넷 게임에 대한 기대가 아동·청소년의 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2), 209-219.
- 최성보 (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중등교육연구, 59(2), 261-287.
- 최성보, 이현철, 김경식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자료집, 348-369.
- 최승희 (2003). 청소년 미혼모들의 슬픔 관련 요인들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3), 1-19.
- 최옥순 (2004).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 가정 및 학교환경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 진혜경, 김종원 (2001). 학령기 집단 따돌림 피해 및 가해아동의 인격형성에 관한 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2(1), 94-102.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20.
- 탁수연, 박영신, 김의철 (2002). 보호관찰 청소년과 고등학생 부모집단의 자녀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 2002년도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1-326.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2010 상담경향 분석 보고서' <http://www.kyci.or.kr/>



- 한기혜, 박영신 (2003).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환경과 부모자녀관계. 2003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5-196.
- 한기혜, 박영신 (2004).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환경과 부모자녀관계. 아동교육, 13(1), 95-109.
- 한동세 (1974). 정신과학. 서울: 일조각.
- 한순미 (2011). 가정환경의 건강성이 청소년의 정서기능, 사회기능 및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현아, 도현심 (2008). 가정의 위험요인, 자아탄력성 및 또래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1), 87-101.
- 허정윤, 유정달 (2010). 아동기 정서적 외상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24(1), 177-211.
- 홍영수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의 완충효과. 한국아동복지학, 20, 7-33.
- 홍영수, 전선영 (2005). 청소년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9(4), 125-149.
- 福井康之 (1985). 青少年期の不安と成長. 東京: 有斐閣新書.
- 河合隼雄 (1997). 母性社會日本の病理(1997). 東京: 中央公論社.
- 稻村 博 (1994). 思春期挫折症候群-現代の國民病 東京: 新曜社.
- 宮田 加久子 (1991). 無氣力のメカニズム—その豫防と克服のために—. 誠信書房.
- 李相蘭 (2003). 韓國における青年期無氣力傾向に関する研究. 東京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183.
- 笠原 嘉 (1983). 無氣力の精神病理學. 東京: 岩波書店.
- 笠原 嘉 (1984). アパシー・ シンドロム. 岩波書店.
- 齊藤 環 (1997). 社會的ひきこもり. PHS新書.
- 山田 和夫 (1990). 家族關係の中での スチューデント・ アパシー. 同朋舎.
- 鐵島清毅 (1993). 大學生のアパシー傾向に関する研究. 教育心理學研究.
- 島藪安雄, 保崎秀夫 (1986). 青少年の社會病理. 精神科Mook, No.14, 金原出版.
- 西園昌久 編 (1993). 思春期の精神障害. 東京: 研友社.
- Allen, B. (1995). Gender Stereotypes are not Accurate: A REplication of Martin(1987) Using Diagnostic vs. Self report and Behavioral Criteria. *Sex Roles*. 32(9-10), 583-600.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a).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ext revision: DSM-IV-TR(4th ed.), Washington, D. C.: Author.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b). *Practice guideline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Washington, D. C.; Author.
- Bolger, K. E., C. J. Patterson & J. B. Kupersmidt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 Collins, G. R. (1999). *Christian Counseling*, 피형희, 이혜련 옮김. 크리스찬 카운슬링. 두란노.
- Dutton, D. G. (1999). Traumatic Oriins of Intimate Rag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4(4), 431-447.

- Gelinas, D. J. (1993). Relational patterns in Incestuous Families, Malevolent Variations and Specific Interventions with the Adult Survivor. 1~34 in P. L. Paddison(ed). *Treatment of Adult Survivors of Inces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Gillmatin, B. (1987). Peer Group Antecedents of Severe Love-shyness in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55, 467-475.
- Goddington, R. Dean & Moille M. Wallick (2002). *Child Psychiatry*. Warren H. Green, Inc.
- Hendrix, H., 서민아 역 (2004). 연애할 땐 Yes, 결혼하면 No가 되는 이유. 프리엄북스.
- Hymel, S., K. Rubbin, L. Rowden & L. Lemare (1990).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6), 2004-2021.
- Johnson, D. (2001). Trauma, Dissociation and Learning Disability. *Clinical Psychology Forum*. 147, 18-21.
- Kaplan, S. J., D. Pelcovitz & V. Labruna (1999). Child and Adolescent Abuse and Neglect Research: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Part 1: Physical and Neglect.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8(10), 1214-1222.
- Krause, E. D., T. Mendelson & T. R. Lynch (2003). Childhood Emotional Invalidation and Adult Psychological Distress. *Child Abuse Neglect*. 27(2), 199-213.
- Leader, D. & Corfield, D. (2007). *Why do People get ill ?*. 배성민 옮김 (2011). 우리는 왜 아플까. 동녘사이언스.
- Mcgee, R. A, D. A. Wolfe & S. K. Wilson (1997). Multiple Maltreatment Experiences And Adolescent Behavior Problems: Adolescent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9, 131-149.
- McGinnis, J. M. & Foege, W. H. (1993). Actual Causes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0, 2207-2212.
- Mullen, P. E., J. L. Martin, J. C. Andelson, S. E. Romans and G. P. Herbison (1996). The Long-term Impact of the Physical, Emotional and Sexual Abuse of Children. *Child Abuse Neglect*. 20, 7-21.
- Narramore, C. M. (2000). *Encyclopedia of Psychological Problems*. 김연 역, 이상심리학 백과사전. 보이스사.
- Nocack, D. (2003). Realizing Engel's Vision: Psychosomatic Medicine and the Education of physician Healers. *Psychosomatic Medicine*. 65, 925-930.
- Rape, R. M. & L. F. Melville (1997). Recall of Family Factors in Social Phobia and Panic Disorder: Comparison of Mother and Offspring Reports. *Development and Anxiety*. 5, 7-11.
- Rubin, K. H., S. Hymel & R. S. L. Mills (1989). Sociability and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Stability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57, 237-255.
- Sedlak, A. J. & D. D. Broadhurst (1996). *Third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Rockville, MD: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pertus, I. L., R. Yehuda, C. M. Wong, S. Halligan and S. V. Seremetis (2003).

Childhood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predictors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Symptoms in Women presenting to a Primary Care practice. *Child Abuse and Neglect*. 27(11), 1247-1258.

논문투고일 : 2012. 10. 4.  
1차 심사일 : 2012. 10. 15.  
2차 심사일 : 2012. 11. 6.  
게재확정일 : 2012. 11. 26.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Wounds in the Growth Period, Inferiority Complex, Personality Disorder and Mental-Health among Secondary Students**

**Man-pyo Le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 growth period wounds, inferiority complex and personality disorder of teenaged students, which affected their mental health.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110 secondary students.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hether there would be any differences among the adolescents in those factors were analyzed,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were carried out. As a result, there were relatively more significant problems with the growth period wounds, inferiority complex, personality disorder and mental health of the students who were girls, who were high schoolers, whose household economy was more vulnerable and whose academic standing was lower. The growth period wound that exerted the largest significant influence on inferiority complex was happiness, followed by wound of security and wound of recognition, and the growth period wound that had the greatest significant impact on personality disorder was happiness, followed by wound of security, wound of confidence, wound of love and wound of equity. The growth period wound that exercised the biggest influence on mental health was happiness, followed by wound of security, wound of confidence, wound of love and wound of equity. As for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related to mental health, the indirect effects of the growth period wounds through personality disorder and inferiority complex were greater than their direct effect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 that growth period wounds are likely to lead to inferiority complex and personality disorder and ultimately to the injury of mental health, and indicate the importance of healthy family environments and of educational environments in the growth period. and mental health was analyzed,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all the variables. Third, the wound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and stability were identified as the factors that affected inferiority complex among the growth period wound factors. Personality disorder was foun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the wound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stability, love, confidence and a sense of equality in the growth period, and mental health was found to be affected by the wound factors related to happiness, stability, confidence, love and a sense of equality. Fourth, the growth period wounds had a direct impact on mental health, and inferiority complex played a significant mediating role at that time. Every subfactor of personality disorder also produced significant mediating effects except the wound factor of pride. The above-mentioned findings suggest that every possible effort should be made to let secondary students get hurt less to promote their mental health and resolve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at professional counseling intervention and institutional assistance are required to help them to remove their inferiority complex and personality disorder.

*Key words : wounds in the growth period, inferiority complex, personality disorder, mental-health.*